

정인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구갑 국회의원 후보

도봉구갑선거구(쌍문1,3동/창1,2,3,4,5동)

책자형 선거공보

바꾸려면
제대로!

42년 준비된 도봉일꾼

6 윤오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구갑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6	정의당	윤 오	남	1967. 5. 10. (52세)	정당인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현)정의당 도봉구위원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직계존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2,946	32,946	고지거부	육군상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해당없음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누계	현 체납액	
계	699	없음	없음	해당없음
후보자	308	없음	없음	
직계존속	391	없음	없음	

4. 소명서

직계존속 재산현황: 독립생계유지에 의한 고지거부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평범한 꿈이 있습니다

아침 단잠에 이불 걷어차고 나오기가 귀찮지만 내 자리가 있는 직장,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 남 눈치 볼 것 없이 두발 쪽 뺨고 편히 쉴 수 있는 집,
배고프면 아무생각 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아프면 병원 가고,
시험의 압박보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보고 싶은 학교,
두텁진 않더라도 당당하게 내 몫을 꺼낼 수 있는 지갑,
두 눈 초롱초롱한 손녀 손자, 내 아이들에게 작은 소원 하나 선물할 수 있는 기쁨,
막걸리, 소주 한 잔만으로도 위안이 될 오랜 친구를 호기롭게 불러낼 수 있는,
누군가의 생일, 부모 자매형제를 만나는 명절에 서글픔보다 시끌벅적한,
매일 봐도 마음을 들뜨게 하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저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상의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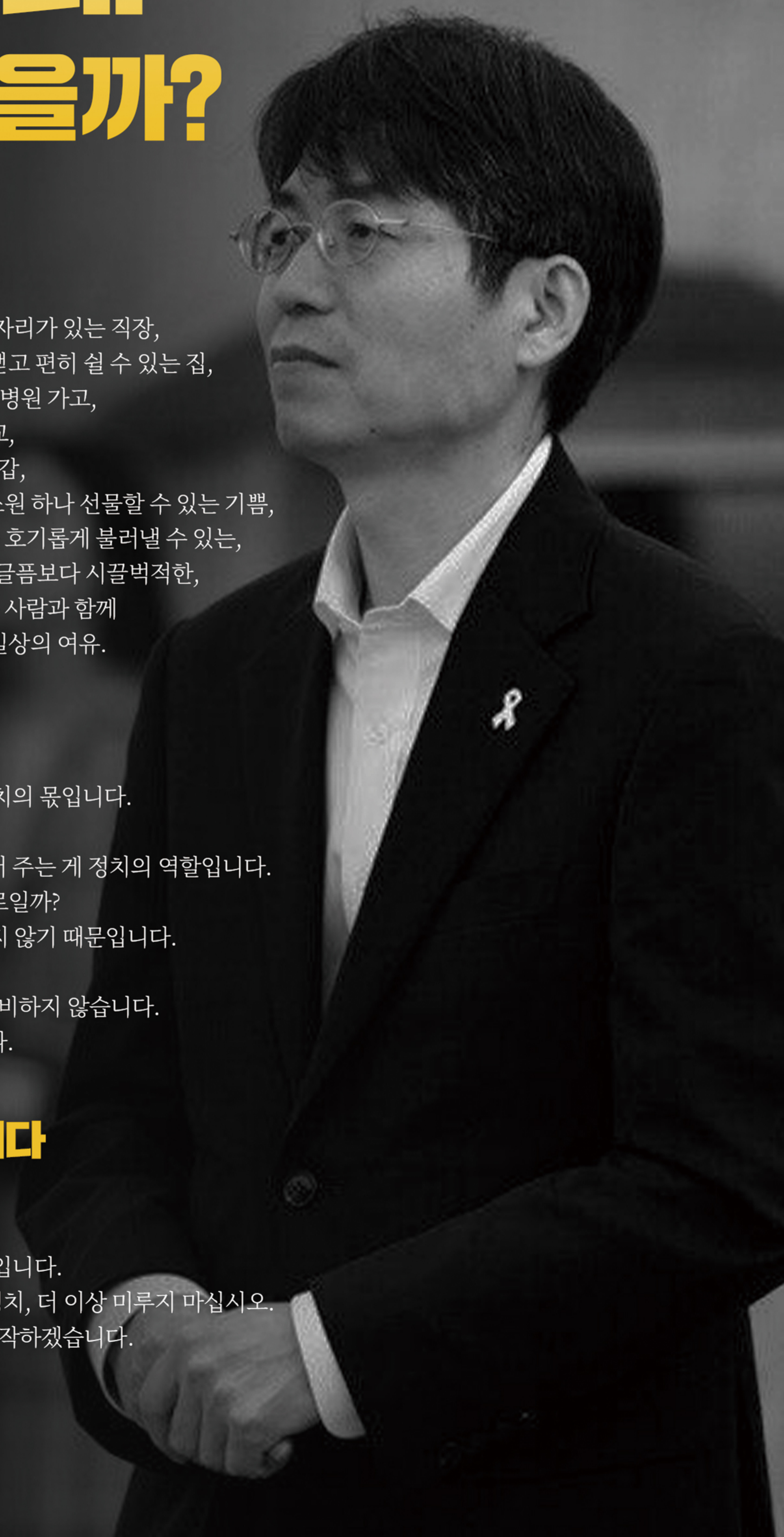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에게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게 정치의 몫입니다.
다가올 내일의 불안과 근심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일상이 내일도 계속된다는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세상은 바뀌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내 미래는 그대로일까?
국회의원이, 여당과 야당이 바뀌어도 정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은 현재에만 머물고자 하며,
제1야당은 퇴행적인 과거에 잡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의 선택에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판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 정치의 역할 이제 바뀌야 합니다.
지금 도봉구민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내 이익을 대변할 대표를 의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꿀 정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정치,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선택, 정의당 윤오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 장소 : 민간복지거점기관

● 주관 : 쌍문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0. 대한민국은 부동산 계급사회

상위 1%가 사유지 54% 소유 / 무주택자는 전체 가구 중 44%

(2018년 기준)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체 가구 중 단 16% /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체 가구 중 단 3.3%

-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개발, 세제 관리 강화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근절 대책 시행
 - * 1가구 다주택 보유분(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 효도하는 국가, 걱정 없는 노후생활

OECD(평균 15%) 국가 중 노인빈곤율(44%) 최고

- 기초연금 40만원
- 하나뿐인 집이 아닌 소득 만큼 내는 건강보험료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건강관리사 배치
- 돈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찾아가는 주치의제
- 빈곤 대물림하는 부양의무제 완전폐지



2.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나라

- 유아**
 -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하여 유아학교 설립, 국공립유아학교 50%
 - 유아 3년(만3세 유아, 학부모는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음)의무 무상교육
 - 3대(출산, 육아, 돌봄) 휴가 확대
 - 자영업자 등의 육아휴직 대상 확대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 중·고교**
 - 중학교까지 선행 사교육 단계적 금지(사회적 합의 통한 중장기 목표 제도화)
 - 일반고 중심의 공교육 강화: 외고, 자사고 등 폐지(과학고 등 일부 제외)
 -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 '일반고 교원 당 학생 비율을 과학고 수준으로'
 - 미래사회 대비 직업계고 개편: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
 - * 취업 후 (전문)대학 진학(국공립 및 공영형 전문대 무상교육)
- 대학**
 - 대입전형 학생부 전형과 수능전형 단순화로 정시, 수시 통합

3. 건강 걱정 없는 대한민국

-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구축으로 감염병 OUT!
- 사보험 없이 병원비 완전 해결하는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 * 어떤 병에 걸려도 급여/비급여 진료비 합쳐 1년 백만원만 부담
- 상병수당 도입(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전)
-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및 건강권 보장

4. 노동이 당당한 나라

-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 '고용유지지원금' 등 적용대상 사업주 부담감면 지원, 세제혜택 등 병행
- 230만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노동3권 보장) 추진
 - * 노동자권리, 사용자 책임명시, 4대보험 적용 확대
-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기간 확대

5. 동네 자영업자가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나라

- 골목 활성화 3법 제정(상점가 지원·지역사랑 상품권·공공 배달앱)
-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행위 근절
- 상가 임대료 부담 경감·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 자영업자 사회안정망 강화

6.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 인정한 사회

청년

-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 (19~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지원기간 3년)
-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여성

-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종식 위한 국가비전 수립 및 법제도 전면 정비
- 스토킹처벌법부터 성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장애인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과 의무고용제 강화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추진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주민

-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

새로운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왜 윤오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공약이 똑 같습니다.

구청장 공약인지 국회의원 공약인지, 심지어 시의원/구의원 공약과 구별이 안 됩니다.

여당도 야당도 공약은-특히 지역공약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 삶에 별문제 없는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매해 수백억 대의 예산을 서울시와 국가재정에서 가져옵니다.

서울시 25개 구, 전국단위로 계산하면 그 예산만 수조 단위 금액입니다.

낙후된 지역기반 개선을 위해 예산을 끌어 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제1의 기준이자 주업무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과 평가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토목건축 중심의 사업예산이 지역에 투입되면 집값도 오르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 개개인의 일생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출생, 교육, 병원비, 주거, 일자리, 실업, 안전, 환경, 사회적 불평등, 노후대책 등 이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개선하는 정치활동이 국회의원의 제1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매해 반복되는 나눠먹기, 단발성 예산만 제대로 사용해도 내일의 걱정 하나는 덜 수 있습니다.

지금 윤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재선을 염두에 두는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 수 십년의 관행을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오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변화, 윤오를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도봉정치, 이제 판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바꾸려면 제대로!
42년 준비된 도봉일꾼**

6

윤 오

**코로나19 재난,
긴급하고도 광폭적인 대처가
시급합니다.**

적게 하는 것보다 과도한 것이 낫습니다.
바닥부터 가계경제가 무너지면 기업의
대규모 '노동자 해고폭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규모사업장, 임시일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돌봄가족, 노인 등
바닥부터 무너지기 전에 전면적인 대응
(현금 직접소득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력]

신창초, 신일중, 경동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도봉구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노원도봉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도봉구의정감시단 공동대표(전)
FCB코리아 Finance Director(전)